

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



입보다 먼저 귀를 열 것

이름	정다은
전공	회계학전공
학번	20205077
참여 프로그램	<input type="checkbox"/> 1-on-1코칭 (담당교수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글말특강 (3/8/9회차)

마지막 학기가 되어 취업의 문턱이 가까워 오자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. 도움을 얻고자 학기 중 틈틈이 교내에서 진행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 글말교실을 알게 되었다. 관심이 가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 몇 개를 신청하여 들었고 그중 가장 흥미롭게 듣고 유익했던 회차 - 9회차 : 말하기를 위한 듣기의 힘 - 의 소감문을 공유하고자 한다.

이번 학기에 진행된 글말교실 특강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글쓰기와 말하기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. 그 사이에서 듣기를 주제로 한 9회차 특강이 눈에 띄어 신청하여 수강했다. 보통의 사람이라면 살면서 글쓰기, 말하기와 같은 아웃풋(Output) 능력을 평가받는 일은 흔하지만 외국어 시험을 제외하면 듣기 시험 등 듣기 능력만을 평가받는 일은 생소하다. 말하기와 글쓰기 스킬이나 훈련은 들어봤어도 듣기 연습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. 이러한 이유로 우리 중 대다수는 잘 쓰고 잘 말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잘 듣기 위해서는 그다지 특별한 연습을 하지 않는다.

나의 경우도 특강을 듣기 전까지는 말하기와 쓰기가 듣기와 읽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 왜냐하면 확실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주로 아웃풋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데, 예를 들면 필기시험 및 글쓰기 과제에 대한 성적을 결정하거나 면접에서 합격,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전적으로 아웃풋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.

듣기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은 일상생활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. 비격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보면 무의식적으로 잘 말하려는 욕심에 듣기보다 말하기에 훨씬 더 신경을 쓴곤 했다. 특강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보다 앞서 그 말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듣기 때문에 듣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. 실제로 대화 중 어느 한쪽이 질문을 잘 듣지 못하여 맥락과 벗어난 대답을 하면 대화의 질이 떨어져 흐지부지 끝났던 경험이 많았다.

특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미디어 환경이 우리의 듣기를 너무나 쉽게 방해한다는 것이다. 쇼츠, 릴스와 같은 숏폼 형태의 미디어를 빠르게 넘겨 보고, 긴 유튜브 영상을 배속 기능을 사용하여 빠르게 재생하고, 관심 없는 구간은 금방 넘겨보면서 영상을 틀어놓은 채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등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듣지 못한다고 한다. 이렇게 미디어를 들으며 굳어진 습관이 실제 대화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.

성공적인 듣기를 위한 방법으로 3F를 강조하는데, 3F는 Fact, Feeling, Focus를 의미한다.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여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면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고 대화 걸음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. 여기에 공감하고 반응하면 상대방은 더욱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진정성있는 대화로 이어지는데, 말을 잘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3F를 잘 캐치하여 듣는 것은 물론이고 리액션 하며 반대로 본인이 말을 할 때도 3F를 중심으로 전달하여 듣는 사람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같다.

이러한 3F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. 지난 면접 경험들을 되돌아봤을 때 면접장 분위기와 면접관의 태도에 따라 경직되는 정도가 달랐는데, 면접관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느낄 때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기가 편했다.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앞에서 편하게 말하게 되고 편하게 말하다 보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공감되는 부분이다.

“잘 말하기 위해 잘 듣는다.” 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듣기의 기능이 자칫 잘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보조 역할 정도로 알아듣기 십상이지만 듣기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잘 말하기의 핵심이다. 듣기의 중요성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었고 듣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. 그동안은 듣기와 말하기의 비중을 2:8 정도로 나누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7:3 대화의 황금비율을 잊지 않고 입을 열기 전 귀를 여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겠다.